

NEWS LETTER

2020년 4월 6일 Vol. 366

조성민 의료원장 특별 인터뷰 “사명감 하나로 방호복 사투 벌이는 의료진에 감사”

지난 3월 24일 조성민 동국대학교 의료원장은 불교 병원으로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불교계 유일의 종합병원인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경주병원은 전염병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최전선에 서서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메르스가 유행할 때나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마찬가지다. 메르스 확진 환자를 치료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일산과 경주병원은 현 상황을 이겨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위험을 막고, 내원객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교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국민안심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의료진 60명이 1주일 내내 돌아가며 진료한다.

조성민 의료원장은 “현재 의료진을 포함해 병원 모든 직원이 현장 대응으로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코로나 19 조기발견과 전파차단을 위해 밤낮없이 근무하는 의료진과 교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외과 김성룡 교수, 고난도 ‘복강경하 췌-십이지장 절제술’ 성공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외과 김성룡 교수가 최근 경기북부 최초로 ‘복강경하(유문보존)췌-십이지장 절제술’을 연이어 성공해 지역병원으로서 고난도 암 수술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췌-십이지장 절제술은 췌장 두부 질환과 담도 질환에서 시행되는 수술로 절제술과 문합술이 모두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다. 또한, 정밀한 술기가 요구되는 부분이 많아 외과에서 시행되는 수술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술 중 하나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외과 김성룡 교수는 “최근에 여러 병원에서도 장을 연결하는 문합술의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로봇 수술을 접합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절제술과 문합술을 모두 복강경 수술로 시행하는 것은 초 고난도 수술로 국내에서도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후 로봇이 도입될 경우 적응증을 높여 복합적인 수술이 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경기 북부 지역병원 최초로 이번 수술이 성공함에 따라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넓은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동국대 참사랑사회공헌센터와 (사)월드머시코리아, 코로나19 성금 500만 원 전달

지난 4월 3일, 참사랑사회공헌센터(구. 동국참사랑봉사단)와 (사)월드머시코리아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코로나19 극복지원 성금으로 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료현장에 예방 물품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참사랑사회공헌센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약 170여 명의 동국대학교 교직원들이 후원 중이며, 교직원 후원기금을 매년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인 (사)월드머시코리아에 기탁하여 해외 저개발국가의 교사 신축 및 교육봉사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참사랑사회공헌센터는 지난해 6월 헌혈증 1,575매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기부한 바 있다.



인천 네스트호텔, 의료진을 향한 온정의 손길

지난 4월 2일 인천 네스트호텔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동국대일산병원 의료현장을 방문해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호텔 측은 직접 만든 도시락 150개와 빵과 음료세트 500개, 쿠키세트 150개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도시락과 빵, 간식은 진료 여건상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선별진료소, 안심외래, 안심병동 등 감염관리 현장의 의료진들에게 전달돼 큰 감동이 됐다.

네스트 호텔 김광성 과장은 “모든 업계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회구성원으로서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데 전 직원이 마음을 모았다”라며, “직원들이 도시락 준비를 위해 이른 새벽 출근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이니 맛있게 드시고 의료진 모두가 힘을 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해원 병원장은 “여러 각계각층의 많은 성원에 큰 힘과 용기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로부터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병원 환경을 위한 방역 소독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고 안전한 병원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 소독 및 방역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병원을 찾는 모든 내원객을 대상으로 병원 출입 전 발열 체크, 손 소독, 방명록 장성을 의무화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출입 후에도 모든 교직원과 환자와 방문객까지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별진료소 및 격리 외래, 안심병동, 안심 중환자실 운영 △코로나19 감염이 예상되는 모든 환자와 방문객을 구분 △전 직원 및 환자, 내원객 모두 마스크 착용 및 미착용 시 병원 출입제한 △지정된 보호자 1인 외 입원환자 면회 금지 등 내원객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해원 병원장은 “내원객들이 감염으로부터 편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